

# 《方言集釋》 상업어휘 연구\*

강 용 중\*\*

---

## ◁ 목 차 ▷

---

- I. 서론
  - II. 연구범위와 방법
  - III. 《方言集釋》 상업어휘의 구성과 전승관계
  - IV. 《方言集釋》 상업어휘 풀이
  - V. 결어
- 

## I. 서론

조선시대의 학문은 성리학의 도입과 전파를 계기로 다양한 발전을 구가해 왔으며, 德治와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조정과 사대부 나아가 민간에 이르기까지 학문을 숭상하는 기풍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이러한 결과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같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왕정 기록 문헌이 정립되었으며, 경서석의와 어록석의로 대별되는 전방위적 유가 경전의 주석 작업도 진행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의 개인 문집 또한 文史哲의 다양한 주제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문집을 기록하고 남기는 일이 學人들의 기본덕목이 되었다. 후기 실학관련 저술과 백과사전적 저작의 출현도 이러한 조선시대의 학문적 전통이 외연을 넓힌 결과라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서당과 과거제가 결합하여 다수의 국민들이 向學하는 기본적인 가치질서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렇듯 서구의 근대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적어도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르네상스와도 비견할 수 있는 커

---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0-413-B00029).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다란 변화를 이 시기에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학문적 기풍과 체계적 혹은 구성주의적 분위기가 외국어 교육 영역에서는 어떻게 발현하였을까? 이는 당시의 외교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우선 중국어 교육에서는 《노걸대》·《박통사》 등과 같은 회화서가 등장하였고, 이러한 회화서와 짝이 되는 유해류 역학서<sup>1)</sup>들이 다량으로 간행되었다. 당시 대외관계의 주요 대상국이 중국이었던 만큼 이 분야의 성과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후 당시 중국의 지배세력인 淸을 개국한 만주족과의 교류를 위해 淸語<sup>2)</sup> 학습서가 출현하였고, 비록 세력은 약화되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元代의 후예인 몽골이 사용하던 蒙語 학습 자료도 간행되었다. 그리고 인근의 일본과의 교류를 위해 日語의 학습서도 활발히 만들어졌다.

이상의 네 종류의 외국어를 四學이라고 하고 그 구성은 漢學, 淸學, 蒙學, 倭學으로 되어있다. 이들 四學을 관장하는 국립 기구가 바로 司譯院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국어 연구자나 해외의 중국어 연구자들은 《노걸대》·《박통사》 등과 같은 회화류 역학서에 치중하여 어법과 음운사 연구에 주력해 왔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이에 못지않게 활발히 연구되고 간행되었던 유해류 역학서는 국어학자들이 우리의 중세국어 연구하면서 활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외의 중국어 연구자들에게는 많은 주의를 받지 못했다.

어휘는 어법이나 음운에 비해 변화 속도가 빠르며, 생성과 소멸 현상이 더 두드러지는 언어요소이므로 사회의 변화나 개념의 外表인 어휘의 연구를 통해 언어의 보다 풍부한 측면을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유해류 역학서에 반영된 어휘를 通時적으로나 共時적으로 연구한다면 많은 유의미한 결론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 중 漢學類로는 《譯語類解》(1690년), 《譯語類解·補》(1775년), 《華語類抄》(1883년) 등이 있고, 淸學類에는 《同文類解》(1748년), 《漢淸文鑑》(1779년) 등이 있으며, 蒙學類와 倭學類로는 각각 《蒙語類解》(1768년), 《蒙語類解·補編》(1790년)와 《倭語類解》(1783년 이후)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四學의 어휘를 하나의 테이블에서 편집하고 대비한 유해류

1) 중국어 학습용 대역 분류어휘집이다.

2) 만주어를 다루는 분과를 淸學이라고 했으며 '同文'이라고도 불렀다.

역학서가 출현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方言集釋》<sup>3)</sup>이다. 이 책은 1778년(정조 2) 洪命福 등이 간행한 漢語-淸語-蒙語-倭語 등의 四學의 어휘를 분류사전의 형식으로 작성했으며 우리말 의리를 표제어 뒤의 풀이에 附記했으므로 5종 언어 對譯 語彙集으로 볼 수 있다. 체제는 아래의 표에 보이는 대로 中國語 표제어 아래 우리말로 풀이하고 그 뒤에 漢語, 淸語, 蒙語, 倭語의 순으로 한글 기음을 나열했다.

〈표〉 《方言集釋》의 체제

體 例	(①표제어 ②한글뜻) ③[중국어] [한자] [漢音] ④[만주어] [滿音] ⑤[몽골어] [蒙音] ⑥[일본어] [日音]	原本內容 
	(①冬 ②겨울) ③漢 冬 등 ④淸 투위리 ⑤蒙 어불 ⑥倭 후유	

이 책은 이전에 간행된 각각의 四箇國語 대역 어휘집에 근거한 것으로 당시 譯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部類의 배열은 아래와 같다.

3) 《方言集釋》의 서지적 검토는 김방한(1966:101~103), 채영순(2010:567~570) 참조. 《方言集釋》의 書名에 대해서는 《方言類釋》, 《方言輯釋》 등 異見이 많지만, 배석주(2006:8~9)에 따르면 원본의 '類'字 위에 '集'으로 重書하여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연구에서도 《方言集釋》이라 칭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필자도 《方言集釋》이라 칭한다.

## ▲第一卷

1. 天文 2. 時令 3. 地輿 4. 尊卑 5. 親屬 6. 身體 7. 容貌 8. 動靜 9. 氣息  
10. 性情 11. 言語 12. 宮殿 13. 朝會 14. 政事 15. 官職 16. 陞黜 17. 人類  
18. 稱呼 19. 祭祀.

## ▲第二卷

20. 嫁娶 21. 生産 22. 喪葬 23. 宴會 24. 接待 25. 文學 26. 筆硯 27. 科  
試 28. 儀器 29. 樂器 30. 數目 31. 教閱 32. 軍器 33. 射藝 34. 衙署 35.  
倉庫 36. 城郭 37. 街道 38. 橋梁 39. 屋宅 40. 營作 41. 服飾 42. 裁縫 4  
3. 布帛 44. 紡織 45. 食餌 46. 割烹.

## ▲第三卷

47. 茶酒 48. 飲啜 49. 疾病 50. 殘疾 51. 醫藥 52. 卜筮 53. 梳飾 54. 鏡  
奩 55. 床帳 56. 器用 57. 罵辱 58. 爭訟 59. 刑獄 60. 僧道 61. 寺觀 62.  
珍寶 63. 買賣 64. 借貸 65. 蠶桑 66. 田農 67. 農器 68. 米穀 69. 菓品 7  
0. 菜蔬 71. 匠器.

## ▲第四卷

72. 製造 73. 技戲 74. 舟船 75. 車輛 76. 鞍轡 77. 佃獵 78. 釣漁 79. 皮  
革 80. 柴火 81. 飛禽 82. 走獸 83. 昆蟲 84. 水族 85. 樹木 86. 花草 87.  
雜語.

총 87개 部類에 수록된 표제어는 모두 5,200개이며 그중 ‘中州鄉語’<sup>4)</sup>로 분류한 것이 194개이다. 앞에서 소개한 유해류 역학서는 語種에 따라 내부적으로 표제어의 선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漢語의 경우 역관의 수준이 높고 다수를 차지하며 사용기회도 많다. 반면 만주어나 몽골어는 형태가 발달하고 수요도 한어의 그것에 비해 적으며 概念語 자체의 전달이 주요한 학습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方言集釋》이 기존에 출간된 다중언어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표제어 자체의 이중적 속성이 담지 될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sup>5)</sup>

필자는 근년에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에 반영된 상업어휘를 연작 논문의 형식으로 연구하고 있다. 위의 《方言集釋》卷三에 보이는 63.買賣와 64.借貸가 바로 상업어휘에 해당한다. 현재까지 《譯語類解》와 《譯語類解·補》의 상업어휘 연구는 이미 진행했고 본고에서는 《方言集釋》의 상업어휘를 ‘상업어휘의 구성’, ‘전승관계’ 및

4) ‘중주향어’에 대해서는 강은지(2007)과 채영순(2010) 참조.

5) 강용중(2009a) 참조.

‘어휘풀이’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II.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 다루는 상업어휘는 《方言集釋》에 수록된 91개 어휘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다수의 유해류 역학서 중 《方言集釋》은 다른 유해류 역학서와 비교할 때 아래의 예시에서 보는 대로 시기적으로 중간에 위치한다.

1. 《譯語類解》(1690)
2. 《同文類解》(1748)
3. 《蒙語類解》(1768)
4. 《譯語類解·補》(1775)
5. 《方言集釋》(1778)
6. 《漢清文鑑》(1779)
7. 《倭語類解》(1783年 以後)
8. 《蒙語類解·補編》(1790)
9. 《華語類抄》(1883)

우선 지적할 사실은 《方言集釋》이 출현하기 이전에 적어도 4종 이상의 유해류 역학서가 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중국어 사전인 《譯語類解》, 《譯語類解·補》와 만주어 사전인 《同文類解》 및 몽골어 사전인 《蒙語類解》가 이미 간행되어 있었으므로 4개 국어 對譯辭書인 《方言集釋》을 편찬할 때 이들 저작의 영향은 매우 컸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3년여의 준비를 거쳐 1779년에 간행된 만주어 대역사서인 《漢清文鑑》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기존의 유해류 역학서에서 상업어휘는 〈買賣〉에만 저록되어 있으나 《漢清文鑑》에 이르러 〈買賣〉에 해당하는 〈貿易〉에 典當과 관련된 〈當借〉를 분리시킨 것<sup>6)</sup>은 오히려 《方言集釋》에 영향을 주어

6) 《漢清文鑑》(1779)의 상업어휘는 63개로 〈貿易〉의 44개, 〈當借〉의 19개가 있다.  
 〈貿易44〉: 生意, 做生意, 買賣, 販賣, 典, 買, 賣, 合同, 文約, 紅契, 白契, 契根, 契尾, 會票, 合夥, 一夥, 吆喝, 價值, 貴, 賤, 值, 估價, 價值相等, 價昂, 價落了, 價狠落了, 相當, 貼頭, 賒, 兌換, 舊物回贖, 倒樁, 租子, 租, 賬目, 工錢, 便宜, 利, 有利

〈買賣〉와 〈借貸〉로 분류하였다고 추론할 수 있다. 왜냐하면 《方言集釋》의 서문을 쓴 徐命膺이 바로 ‘통신정사’ 등을 역임한 淸國 관계 외교 전문가로 추정되므로<sup>7)</sup>, 그가 같은 시기에 편찬된 淸學書인 《漢淸文鑑》 및 그의 저본인 중국의 《御製增訂淸文鑑》에 대해 해박하여 종합 대역사서에 해당하는 《方言集釋》을 편찬할 때 《漢淸文鑑》을 반드시 참고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方言集釋》의 상업어휘 자체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이전 시기에 간행된 다른 대역사서를 대비, 고찰할 것이다.<sup>8)</sup> 이러한 고찰이 방법적으로도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는 근거로는 첫째, 위의 대역사서들이 동일한 기구인 사역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 둘째, 위의 저작들의 공통적인 체제가 어떤 語種을 막론하고 다 중국어를 표제어로 삼았다는 점 등이다.

상업어휘의 풀이는 《現代漢語規範詞典》(현대)와 《漢語大詞典》(고대 및 근대 등)를 기본 辭書로 하고 보조적으로 ‘CCL(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베이스<sup>9)</sup>’를 사용해 용례의 사용 시기나 문헌 등의 정보를 확보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91개 중 몇 개를 골라 어휘의 현대어 풀이와 그 의미에 해당하는 예문을 검색하여 의미와 출처 및 몇 가지 오류를 찾아보았다. 다만 필자의 기존 연구에서 이미 제시한 적이 있는 《譯語類解》와 《譯語集解·補》에 보이는 어휘는 지면 관계상 배제하기로 한다. 예문은 시기적으로 제일 빠른 것을 위주로 수록했으며, 《漢語大詞典》 등의 공구서의 수록 여부 등도 동시에 언급했다.<sup>10)</sup>

본고에서 사용한 《方言集釋》은 1988년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의 《日本學》 6~7집의 부록에 실린 1778년 寫本이다.

的, 失利, 鋪面, 店房, 做房, 幌子.

〈當借19〉: 當頭, 當舖, 當, 贖, 許贖, 放債, 借債, 債負, 中保, 立券, 保, 債, 債累, 債多, 利息, 生利息, 還, 低還, 移債他人.

7) 배석주(2006: 15~17) 참조.

8) 이러한 대비는 우선 동일한 범주인 상업관련어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이 소실되고 어떤 것이 생성되었는지, 나아가 상업어휘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할 것이다. 물론 이 작업은 판종 간의 비교이므로 각기 다른 판종 사이의 영향관계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강용중 2011: 383 참조).

9)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참조.

10) 강용중(2011: 383~384) 참조.

### Ⅲ. 《方言集釋》 상업어휘의 구성과 전승관계

#### 1. 《方言集釋》 상업어휘의 구성

본 논문에서 다루는 《方言集釋》에는 91개의 상업 어휘가 수록되어 있으며, 〈買賣〉에 73개, 〈借貸〉에 18개이다. 이전의 유해류 역학서에 수록된 상업어휘는 〈買賣〉에만 보이나 《方言集釋》에서는 일부 어휘를 〈借貸〉로 분리했다. 〈買賣〉가 직접적인 상거래와 관련 있다면, 〈借貸〉에 수록된 어휘는 典當業이나 利子, 계약서 등과 관련 있으므로 이전의 분류어휘집 보다 더 세분화된 部類를 설정하고 있다.<sup>11)</sup> 아래는 《方言集釋》의 상업어휘이다.

##### 〈買賣〉73개

買主, 賣主, 夥計, 牙子, 集, 趕集, 鋪子, 雜貨鋪, 飯店, 酒鋪, 茶局, 醬園, 錢局, 油房, 藥鋪, 行裡, 招牌, 幌子, 青帘, 開鋪, 噯叻賣, 搖貨郎, 發賣, 講價, 價貴, 價高, 價賤, 價低, 上用的, 真的, 假的, 絕高, 稀罕, 地頭的, 平常的, 照市價, 價對, 退換, 虧本, 貼錢, 開賬, 換換, 對換, 兌銀子, 補秤, 賒賬, 流水賬, 完賬, 賬本, 合夥, 掣籤, 平分, 編派, 分開, 分給, 討添, 剩下, 不勾, 另補, 造化低, 本錢, 掙錢, 大發財, 生意, 稅上, 收稅, 上稅, 稅錢, 牙錢, 湊斂, (中州鄉語: 利市, 活計, 經紀).

##### 〈借貸〉18개

當舖, 財主, 放債, 出債, 做保, 文契, 借契, 紅契, 白契, 立券, 債樁, 討債, 低還, 還當, 子母債, 月利錢, (中州鄉語: 賄, 歸).

우선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앞에서 제기한 것처럼 상업어휘를 〈買賣〉門인 단독 부류가 아니라 〈借貸〉를 독립시켜 양분한 것이다. 실제로 〈借貸〉의 많은 어휘들이 이전의 유해류 역학서 중 〈買賣〉門에 속했던 것이다. 이를 출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譯語類解·補》의 〈買賣〉門에서 온 것: 月利錢, 文契, 還當, 當舖, 子母債, 財主, 借契, 討債, 債樁.

11) 강용중(2009a) 참조.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의 〈買賣〉門에서 온 것: 放債, 出債, 做保<sup>12)</sup>.  
 《漢清文鑑》의 〈貿易〉門에서 온 것: 紅契, 白契.  
 《漢清文鑑》의 〈當借〉門에서 온 것: 低還, 立券.

이상을 종합해 보면 《方言集釋》의 〈借貸〉에 보이는 ‘중주향어’의 두 어휘(購, 歸)를 제외한 16개의 어휘가 이전의 유해류 역학서의 〈買賣〉門에서 채록된 것이며, 《漢清文鑑》의 네 어휘를 포함하면 전체 어휘가 다 다른 역학서에서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중주향어’로 구분한 5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전의 다른 유해류 역학서에는 이러한 종류의 어휘가 附記되지 않고 있다. 오직 《方言集釋》에만 보이며 선행연구에 따르면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에서 가져온 것이라 했다.<sup>13)</sup> 그렇다면 왜 《方言集釋》의 편찬자들은 《理學彙編·字學典 方言部》를 참조했을까? 필자의 추론으로는 이 책에 수록된 어휘들은 대부분 唐宋明代의 地方誌에 실린 방언어휘들로 중원의 通語에 부분적으로 침투된 상용어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위의 전체 상업관련 표제어들을 언어학적으로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적으로 일부 표제어는 단어가 아닌 形尾 ‘~的’이 붙은 句이다. 《譯語類解·補》에 보이는 ‘雇了’와 같은 形尾 ‘~了’는 보이지 않았다.

上用的, 真的, 假的, 地頭的, 平常的.

다음으로 보이는 것들은 중첩이나 동보식, 동목식, 주위식 구이다.

換換(중첩), 稅上, 剩下(동보식), 收稅, 上稅, 兌銀子(동목식), 造化低, 價貴, 價高, 價賤, 價低(주위식).

앞의 예와 같이 단어가 아닌 중첩이나 구의 형태가 표제어가 된 것은 고대 사람

12) ‘做保’는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에는 ‘做保人’으로 되어 있으나 《方言集釋》의 편찬자가 채록한 것으로 보인다.

13) 강은지(2007), 채영순(2010)에 따르면 일본학자 大塚秀明이 ‘중주향어’의 출전을 밝혀냈다고 한다.



들의 언어 관념과 무관하지 않다. 현대 언어학의 단어관념은 대단히 엄밀한 규정 하에서 쓰이는 것이나, 고대인들이 꼭 이러한 기준으로 언어단위를 구분하여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지금의 관점으로 요구할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상의 표제어들은 당시 중국의 표준어 즉 通語란 점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通語란 당시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에서 사용되던 북방 방언에 기초한 표준어인 것이다. 당시의 조선 역관들은 분명 목표언어로 이 통어를 설정했을 것이며, 중국어뿐만 아니라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까지도 대역사서를 만들 때 그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점은 중국어 어휘사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의 유해류 역학서가 200여년에 걸쳐 9종 이상이 간행된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 시기에 해당하는 분류 대역어휘 사전이 통시적으로 적게는 3,000단어에서 많게는 10,000단어까지 정연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본 연구는 일관되게 서로 다른 유해류 역학서의 표제어를 통시적인 관점에서 그 변화를 대비 연구하는 것이다.

## 2. 《方言集釋》 상업어휘의 판본 간 전승관계

유해류 역학서 간의 표제어 전승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영향관계를 규명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휘의 생성과 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전의 판종<sup>14)</sup>에서 수록된 것이 50년 뒤의 다른 판종에 그대로 수록 되었다면 그 어휘는 유지되었다는 뜻이 되며, 반대로 이전의 판종에 보이다 후대의 판종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 어휘는 死語가 되었다는 말이다. 또 이전의 판종에 보이지 않던 단어가 새 판종에 보인다면 누락된 것을 수록했던지 아니면 새로운 단어가 생겨났다는 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方言集釋》은 《漢清文鑑》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전에 다섯 종의 유해류 역학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판종 간의 전승관계를 수록 어휘별로 분석하기로 한다.

14) 본 논문에서는 서로 다른 유해류 역학서를 ‘판종(板種)’ 또는 ‘판본(板本)’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1) 해당 어휘가 《譯語類解》에 처음 보이는 것

① 《譯語類解》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

- 假的: (譯語139)<sup>15)</sup>, (方言-買賣20-2)<sup>16)</sup> 거짓<sup>17)</sup>.
- 開鋪: (譯語138), (方言-買賣20-2)鋪 흥정시작하다.
- 對換: (譯語138), (方言-買賣21-1) 맞바고다.
- 發賣: (譯語138), (方言-買賣20-2) 파다.
- 稅錢: (譯語139), (方言-買賣21-2) 세전.
- 照市價: (譯語138), (方言-買賣20-2) 시가대로하다.
- 地頭的: (譯語139), (方言-買賣20-2) 밋싸엿.
- 眞的: (譯語139), (方言-買賣20-2) 진짓것.
- 絶高: (譯語139), (方言-買賣20-2) 마장쪼타.
- 退換: (一云'倒裝') (譯語139), (方言-買賣21-1) 흥정므르다.
- 靑帘: (一云'酒望子') (譯語138), (方言-買賣20-1) 술포는집표흔기.
- 幌子: (譯語138), (方言-買賣20-1) 자분것포는집의보람흔 것.

② 《譯語類解》, 《方言集釋》, 《華語類抄》에만 보이는 것

- 趕集: (譯語137), (方言-買賣20-1) 장보라가다, (華語39-1)
- 買主: (譯語137), (方言-買賣20-1) 사는님자, (華語39-1)
- 賣主: (譯語137), (方言-買賣20-1) 파는님자, (華語39-1)
- 飯店: (譯語137), (方言-買賣20-1) 밥포는디, (華語39-1)
- 雜貨鋪: (譯語137), (方言-買賣20-1)舖 잡화포는전방, (華語39-1)
- 牙子: (譯語137), (方言-買賣20-1) 즘, (華語39-1)
- 牙錢: (譯語139), (方言-買賣21-2) 즘갑, (華語40-2)
- 搖貨郎: (譯語138), (方言-買賣20-2) 즘복흔들고도는장스, (華語40-1)
- 油房: (譯語137), (方言-買賣20-1) 기름포는디, (華語39-1)

15) '譯語139'는 《譯語類解》 139쪽을 가리킨다. 다른 축약어도 이 체례를 따른다.  
 16) 여기에서 앞의 숫자(20)는 《方言集釋》 해당 권(卷)의 쪽수이고, 뒤의 숫자(2)는 2면(面)이라는 의미이다.  
 17) 여기에서의 우리말 고어는 《方言集釋》의 우리말 풀이이다.

이 유형에는 아래의 ‘集’과 ‘稀罕’도 포함시킬 수 있다. 즉 《華語類抄》(1883)에는 ‘集上’과 ‘稀罕的’이라 하였으나 어간의 의미는 같기 때문이다.

集: (譯語137), (方言-買賣20-1) 외방장저제, [集上]: (華語39-1)  
稀罕: (譯語139), (方言-買賣20-2) 귀하다, [稀罕的]: (華語40-2)

이상 ①과 ②의 특징은 《譯語類解》와 《華語類抄》가 중국어 학습에만 쓰이는 漢學類 유해류 역학서이므로 완전한 중국어 통어이자 《譯語類解》의 刊年인 1690년 이후부터 《華語類抄》의 刊年인 1883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미를 가진다.

③ 《譯語類解》, 《方言集釋》, 《倭語類解》,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講價: (譯語138), (方言-買賣20-2) 값허기다, (倭語55-2), (華語40-1)

④ 《譯語類解》, 《蒙語類解》, 《方言集釋》,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夥計: (譯語137), (蒙語151), (方言-買賣20-1) 동모, (華語39-1)

⑤ 《譯語類解》, 《同文類解》, 《蒙語類解》, 《方言集釋》,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鋪子: (譯語137), (同文184) 鋪, (蒙語151) 鋪, (方言-買賣20-1) 鋪 흥정하  
는전방, (華語39-1) [鋪面]: (漢清-貿易-則二17B) 鋪

이 단어의 경우 《譯語類解》와 《華語類抄》에서는 ‘鋪’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판중에서는 다 ‘鋪’자를 쓰고 있다. 이 두 글자는 이체자이며 의미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으므로 동일한 단어임에 틀림없다. [漢清-貿易-則二17B]에는 ‘鋪面’이라 하였으나 의미상 ‘鋪子’와 동일하므로 同義詞로 볼 수 있으며 통어 方言의 變體로 본다.

③, ④, ⑤의 특징은 《華語類抄》에까지 쓰이나 그 중간에 《同文類解》, 《蒙語類解》, 《倭語類解》 등의 판종에도 쓰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의 ①, ②와 동일한 범주에 넣을 수 있으며, 이로써 《方言集釋》에 보이는 표제어 중 《譯語類解》에서 온 모든 어휘는 19세기의 판종인 《華語類抄》에까지 전승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해당 어휘가 《同文類解》에 처음 보이는 것

### ①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 《方言集釋》에 보이는 것

本錢: 本錢(同文183), (蒙語150), (譯補329), (方言-買賣21-2) 및 천  
月利錢: (同文183), (蒙語150), (譯補329), (方言-借貸22-1) 들별리  
文契: (同文184), (蒙語151), (譯補329), (方言-借貸22-1) 문서  
還當: (同文184), (蒙語151), (譯補329), (方言-借貸22-1) 전당부르다

### ② 《同文類解》, 《蒙語類解》, 《語類解·補》, 《方言集釋》, 《漢清文鑑》,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當舖: (同文184) 舖, (蒙語151) 舖, (譯補329), (方言-借貸22-1) 舖 던당부  
즈, (漢清-當借63B) 舖, (華語39-2)

이 단어의 경우 《譯語類解·補》와 《華語類抄》에서는 ‘舖’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판종에서는 다 ‘鋪’자를 쓰고 있다.

### ③ 《同文類解》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

價高: (同文182), (方言-買賣20-2) 갑과하다

### ④ 《同文類解》, 《蒙語類解》,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

價貴: (同文182), (蒙語149), (方言-買賣20-2) 갑노다

價賤: (同文182), (蒙語149), (方言-買賣20-2) 갑흔하다  
分開: (同文183), (蒙語150), (方言-買賣21-1) 씨혀내다  
出債: (同文184), (蒙語151), (方言-借貸22-1) 빚내다

⑤ 《同文類解》, 《蒙語類解》, 《方言集釋》, 《漢清文鑑》에만 보이는 것

放債: (同文184), (蒙語151), (方言-借貸22-1) 빚주다, (漢清-當借64A)

이상의 어휘들 중 특징적인 것은 ③을 제외하고는 다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에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이들 어휘들은 《譯語類解》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의 유해류 역학서인 《同文類解》와 《蒙語類解》에서 수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②의 '當舖'를 제외하면 《華語類抄》가 간행된 19세기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同文類解》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으로는 '價高'라는 한 단어만 보인다.

3) 해당 어휘가 《譯語類解·補》에 처음 보이는 것

① 《譯語類解·補》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

大發財: (譯補328), (方言-買賣21-2) 횡치하다  
另補: (譯補329), (方言-買賣21-2) 싹로치오다  
湊斂: (譯補328), (方言-買賣21-2) 출렴하다  
借契: (譯補329), (方言-借貸22-1) 빚문서  
兌銀子: (譯補329), (方言-買賣21-1) 은드다  
討債: (譯補329), (方言-借貸22-1) 빚달나다  
討添: (譯補328), (方言-買賣21-2) 투정하다  
換換: (譯補328), (方言-買賣21-1) 맞고다  
虧本: (譯補329), (方言-買賣21-1) 밋지다  
掙錢: (譯補329), (方言-買賣21-2) 돈버오다  
上稅: (譯補330), (方言-買賣21-2) 세밋치다  
稅上: (稅所)(譯補330), (方言-買賣21-2) 세밋치는디

收稅: (譯補330), (方言-買賣21-2) 슈세하다  
子母債: (譯補329), (方言-借貸22-1) 별리잇는빚  
財主: (譯補329), (方言-借貸22-1) 장지  
流水帳: (譯補329), (方言-買賣21-1) 흘림장  
完帳: (淸帳)(譯補329), (方言-買賣21-1) 험뭇다

마지막의 두 단어 流水帳과 完帳의 경우 《方言集釋》에는 ‘帳’이 ‘賬’으로 되어 있으나 이 둘은 이체자이므로 동일한 의미의 동의사이다.

② 《譯語類解·補》, 《方言集釋》,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上用的: (譯補328), (方言-買賣20-2) 나라에서쓸것, (華語40-2)  
補秤: (譯補329), (方言-買賣21-1) 저울추척오다, (華語40-2)  
平常的: (假估的)(譯補328), (方言-買賣20-2) 네스것, (華語40-2)  
開帳: (譯補328), (方言-買賣21-1) 감정하다, (華語40-1)

開帳의 경우 《方言集釋》에만 ‘帳’이 ‘賬’으로 되어 있으나 이 둘은 이체자이므로 동일한 의미의 동의사이다.

③ 《譯語類解·補》, 《方言集釋》, 《漢清文鑑》에 보이는 것

賒帳: (欠帳)(譯補329), (方言-買賣21-1) 又欠賬 외자사장, (華語40-2)

賒帳의 경우 《方言集釋》에만 ‘帳’이 ‘賬’으로 되어 있으나 이 둘은 이체자이므로 동일한 의미의 동의사이다.

④ 《譯語類解·補》, 《方言集釋》, 《蒙語類解·補》에 보이는 것

債椿: (譯補329), (方言-借貸22-1) 빚구럭이, [債椿] (蒙補268)

이 단어의 경우 《蒙語類解·補編》에서는 ‘椿’자를 사용했으나 다른 두 판중에서

는 ‘樁’으로 되어 있으나 이 둘은 이체자이므로 동일한 의미의 동의사이다.

여기에 나온 단어들 중 ①인 《譯語類解·補》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 4) 해당 어휘가 《方言集釋》에 처음 보이는 것

##### ① 《方言集釋》와 《漢清文鑑》에만 보이는 것

- 生意：(方言-買賣21-2) 흥정, (漢清-貿易-則一15B)
- 低還：(方言-借貸22-1) 쳐주다, (漢清-當借64B)
- 合夥：(方言-買賣21-1) 동모호다, (漢清-貿易-則一16A)
- 立券：(方言-借貸22-1) 문서호다, (漢清-當借64A)
- 白契：(方言-借貸22-1) 사스스문서, (漢清-貿易-則一16A)
- 紅契：(方言-借貸22-1) 인친문서, (漢清-貿易-則一16A)

이상의 어휘들은 거의 유사한 시기에 출간된 것으로 《漢清文鑑》에 먼저 출현하고 《方言集釋》에서 채록한 결과로 본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 두 단어가 《漢清文鑑》에서는 〈買賣〉에 해당하는 〈貿易〉門에 실려 있으나 《方言集釋》에서는 《漢清文鑑》의 〈當借〉門에 해당하는 〈借貸〉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현상이 《方言集釋》의 편찬자들의 착오인지 아니면 수정인지는 다른 방법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 ② 《方言集釋》, 《蒙語類解·補》에 보이는 것

- 平分：(方言-買賣21-1) 공평이논호다, (蒙補268)

##### ③ 《方言集釋》, 《華語類抄》에 보이는 것

- 藥鋪：(方言-買賣20-1) 舖 약팍논디, (華語40-1)

이 단어의 경우 《華語類抄》에서는 ‘舖’로 되어 있으나 《方言集釋》에서는 ‘舖’자를

쓰고 있다.

여기에 속하는 단어들은 《漢清文鑑》에서 온 것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전의 《同文類解》, 《蒙語類解》, 《譯語類解·補》 등에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 5) 해당 어휘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것

#### ① 《方言集釋》에만 보이거나 다른 판종에 유사형태가 있는 경우

造化低: (方言-買賣21-2) 스팅업다

이 어휘의 경우 [同文184]과 [蒙語151]에서는 ‘造化’로 되어있고 [蒙語151]에서는 ‘造化高’로 되어 있어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엄밀히 말하면 처음 출현한 어휘로 분류하기 힘들다. 아래의 ‘做保’, ‘貼錢’, ‘酒鋪’, ‘噯叟賣’ 등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做保: (方言-借貸22-1) 보두다(做保人: (同文184), (蒙語151))

貼錢: (方言-買賣21-1) 돈거스리다(貼頭: (漢清-貿易-則二17A))

酒鋪: (方言-買賣20-1)鋪 술포늬디(酒店: (譯語137))

剩下: (方言-買賣21-2) 남은것(剩的: (譯補328))

噯叟賣: (方言-買賣20-2) 웨어포다(噯叟賣: (譯補328))

이상의 어휘들은 이전시기에 이미 보이는 것들 중 詞形이 조금씩 바뀐 것으로, ‘叟’와 ‘噯’의 교체나 ‘酒鋪’나 ‘酒店’의 교체 등 중요한 상용사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 ② 《方言集釋》에 보이는 일반어휘

價對: (方言-買賣20-2) 갑알맛다

價低: (方言-買賣20-2) 갑늬다



茶局: (方言-買賣20-1) 차푼논디  
不勾: (方言-買賣21-2) 모즈라다  
分給: (方言-買賣21-1) 논화주다  
賬本: (方言-買賣21-1) 치부책  
醬園: (方言-買賣20-1) 장푼논디  
錢局: (方言-買賣20-1) 돈푼논디  
招牌: (方言-買賣20-1) 흥정보람푼  
編派: (方言-買賣21-1) 막이짓다  
行裡: (方言-買賣20-1) 매미흔논디  
掣籤: (方言-買賣21-1) 저비지르다

여기에 분류된 어휘들은 《方言集釋》에만 보이는 독립적인 것으로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물론 ‘價對’, ‘價低’ 등은 단어가 아니라 주위식 구여서 가치가 떨어지지만 다른 단어들은 상업어휘이자 구어어휘로 반드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③ 《方言集釋》에 보이는 ‘중주향어’

利市: (方言-買賣-中州21-2) 리스 江南太倉州謂得財及如意爲利市  
活計: (方言-買賣-中州21-2) 호기 以生理爲活計  
經紀: (方言-買賣-中州21-2) 강기 江南嘉定縣東鄙人營生者曰經紀  
賻: (方言-借貸-中州22-2) 칭 山西臨晉縣謂受人之物  
歸: (方言-借貸-中州22-2) 귀 以物與人曰歸

‘중주향어’는 앞에서 밝힌 대로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方言集釋》에서는 의미에 따라 〈買賣〉와 〈借貸〉에 분류해 넣고 중국어 음을 달았다. 이 어휘들도 다른 유해류 역학서 판중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총 91개의 어휘 중 4)의 ②, ③ 및 5)의 ②, ③의 19개 어휘가 《方言集釋》에 처음 보이는 것들이다.

## IV. 《方言集釋》 상업어휘 풀이

이 장에서는 詞形의 변화가 있거나 大型 辭書에서 누락한 난해한 어휘 또는 《方言集釋》에 처음 출현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풀이를 진행하고자 한다. 상고 및 근대 중국어 어휘학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어휘풀이인 만큼 이 논문의 중요한 내용이다.

먼저 우리의 호기심을 일으키는 ‘중주향어’를 다루기로 한다.

【利市】(方言-買賣-中州21-2) 리스 lishì 江南太倉州謂得財及如意爲利市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5쪽 3단 ‘江南太倉州’에는 “謂得財及如意也。出《易經》。”이라 했다. 원문에서 말한 대로 이 단어의 어원은 《周易·說卦》: “爲近利, 市三倍.”(이득이 시장에서 세배나 가까운 것)이다. 원래 의미는 ‘매매에서 얻은 이윤’이다. 중국어의 成語에 ‘利市三倍’라는 말이 있으며 그 의미는 ‘이윤이 많다’이다. ‘三倍’의 ‘三’은 ‘多’의 뜻이다. 《漢語大詞典》(이하에서는 《大詞典》이라고 함)2-636A<sup>18)</sup>에서는 첫 의미항으로 ‘好買賣’로 풀이하고 《左傳·昭公十六年》: “爾有利市寶賄, 我勿與知.”(너희들에게 팔아서 이익을 남길 보물이 있어도 나는 간여하지 않을 것이다.)를 들고 있다. 송대 이후로 명절이나 좋은 일에 주는 돈(세뱃돈 등)을 ‘利市’라고 하며 ‘利是’, ‘利事’, ‘利士’<sup>19)</sup>라고도 쓴다.

【活計】(方言-買賣-中州21-2) 호기 huójì 以生理爲活計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6쪽 2단 ‘江南太倉州’에 “生理也。出白樂天詩。”라 했다.白居易 시 〈閑居貧活計〉(卷四百六十): “莫嫌貧活計, 更富卽勞心.” (큰 부자는 마음을 더 수고롭게 하니, 생계가 곤란함을 탓하지 말라.)라 했고, 〈閑吟贈皇甫郎中親家翁 (新與皇甫結姻)〉(卷二百二十一): “誰能嗟歎光陰暮, 豈復憂愁活計貧.”(누가 시간이 저물어 가는 것을 한탄하겠으며, 어찌 다시 생계가 곤란함을 걱정하겠는가?)라 했다. 대체로 唐代에 출현해 ‘생계;

18) ‘2-636A’는 《漢語大詞典》의 제2권 636쪽 A(2단 중 왼쪽)면을 나타낸다.

19) 이 세 단어는 북방음으로 同音이다.

생계를 유지하다' 등의 뜻으로 쓰였다. 《大詞典》 5-1161A에도 보인다.

【經紀】(方言-買賣-中州21-2) 경기 jìngjì 江南嘉定縣東鄙人營生者曰經紀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 7쪽 2,3단 '江南嘉定縣'에 "俗鄙人營生者曰：'經紀'。唐太宗敕滕王蔣王曰：'滕叔蔣兄自能經紀，不須賜物。'(세속에서 지체 낮은 사람이 생계를 위하는 일을 '經紀'라 한다. 당태종이 등왕과 장왕에게 조서를 내리며 "등왕과 장왕께서는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으니 다른 하사품을 내리지 말라"고 했다.)"이라고 했다. 이 故事는 매우 유명해 元·陶宗儀《南村輟耕錄》：“唐滕王元嬰與蔣王皆好聚斂。太宗嘗賜諸王帛。搬曰：'滕叔蔣兄自能經紀，不須賜物。'韓昌黎作柳子厚墓志云：'舅弟盧遵，又將經紀其家。'則自唐已有此言。”이라 한 것으로 보아 이미 당나라 때부터 이 말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明 田汝成《西湖遊覽志餘》：“稱善能營生者曰：'經紀'。唐滕王蔣王皆好聚斂。太宗嘗賜諸王帛敕曰：'滕叔蔣兄自能經紀不須賜物。'” 清 光緒年間《杭州府志》：“稱善能營生者曰：'經紀'。唐滕王蔣王皆好聚斂，太宗嘗賜諸王帛敕曰：'滕叔蔣兄自能經紀，不須賜物。'”등과 같이 동일한 고사를 전승해서 쓰고 있다. 《大詞典》 9-863B에도 관련 내용이 보인다.

【賻】(方言-借貸-中州22-2) 칭 qíng 山西臨晉縣謂受人之物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 1쪽 3단 '山西臨晉縣'에 "受人之物曰：'賻'。慈盈反。”이라 했다. 《集韻》：“慈盈切，音晴。受賜也。”이라 했으므로 이 《集韻》의 반절과 일치해 그 의미가 같아 '수여받다'의 뜻이 된다. 《大詞典》 10-222B에는 의미를 '受賜'로 풀이하고 元 耶律楚材《和韓浩然韻》之二：“一曲南風奏古宮，坐賻神物愧無功。”을 들고 있다.

【歸】(方言-借貸-中州22-2) 귀 guì 以物與人曰歸

《古今圖書集成·理學彙編·字學典·卷一百四十五卷 方言部》 1쪽 3단 '山西臨晉縣'에 "以物予人曰：'歸'。'歸孔子豚'，'齊人歸女樂。"라 했다. 예로 쓰인 두 구는 각각 《論語·陽貨篇》과 《論語·微子篇》에 보인다. 《論語·陽貨篇》：“陽貨欲見孔子，孔子不見，歸孔子豚。”(양화가 공자로 하여금 자신을 알현하기를 바랐으나 공

자가 오지 않자 썩 고기를 보냈다.) 《論語·微子篇》: “齊人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제나라 사람이 여악을 보내주자 계환자가 받고서는 삼일을 조회에 나가지 않자 공자는 떠나버렸다.) ‘歸’는 ‘饋’의 가차자로 去聲으로 읽어야 한다. 《集韻》에는 ‘求位反.’으로 音注했다. ‘贈送’의 뜻이다. 《大詞典》 5-367B에는 《詩經》의 용례를 들고 있다.

이상의 풀이에서 우리는 《方言集釋》에 반영된 ‘중주향어’의 모든 단어들(《理學彙編·字學典》에서 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들 예의 출처도 분명하고 지역적인 분포도 알게 되었다. 다만 앞에 보이는 ‘賻’과 ‘歸’가 상업어휘에 속하는지는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몇 개의 난해하거나 《方言集釋》에만 나오는 단어를 중심으로 풀이하기로 한다.

【出債】(方言-借貸22-1) chūzhài 빚내다

‘出債’는 《大詞典》에 보이지 않는다. 北京大學 CCL에는 한 가지 예만 보인다. 《周禮·秋官·朝士》: “凡民同貨財者, 令以國法行之, 犯令者刑罰之.” 賈公彥疏: “云‘同貨財’者, 謂財主出債, 與生利還主, 期同有貨財.”라고 하였다. 원문의 의미는 “무릇 백성들이 돈과 재물로 거래할 때 국법으로 명령하여 시행하며 명령을 어기면 벌한다.”이며, 疏의 의미는 “‘同貨財’의 의미는 錢主가 빚을 낼 때에는 이자와 더불어 주인(채권자)에게 돌려주어 돈과 재물을 같이 해야 한다.”로 볼 수 있다. 마침 《方言集釋》에는 이 단어의 反義詞인 【放債】 [(方言-借貸22-1) fàngzhài 빚주다]도 실려 있어 ‘出債’가 ‘돈이 필요한 이가 빚을 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우리말로 ‘빚내다’의 ‘내다’가 ‘出債’의 ‘出’과 통하고, ‘빚을 놓다’의 ‘놓다’가 ‘放債’의 ‘放’과 통함을 알 수 있다. 한편 《大詞典》 5-418B에는 ‘放債’가 수록되어 있다. 宋 蘇軾 《擬進士對禦試策》: “今青苗<sup>20</sup>有二分之息, 而不謂之放債取利可

20) 青苗法是 중국 북송 때의 왕안석이 시행한 농민에 대한 저리 금융 정책이다(青苗法, 亦稱“常平給斂法”、“常平斂散法”. 中國宋朝王安石變法措施之一. 宋朝初期, 在各地設有常平. 惠民等倉庫, 調劑人民糧食歉收時的食糧不足, 但收效不大. 1068年, 各地倉庫積存錢谷1500余石.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 참조).

乎?”(지금 청묘법에는 2할 이자가 있지만 빚을 놓아 이자를 받는 것이 낮지 않는가?) 宋 洪邁 《容齋五筆·放錢》:“今人出本錢以規利入, 俗語謂之‘放債’, 又名‘生放’.”(지금 사람들은 본전을 빌려주고 정한 바대로 이자를 받는데 속칭 ‘放債’라 하며 또 ‘生放’이라고도 한다.) 이로써 ‘生放’이나 ‘放債’가 송대 구어 어휘임을 알 수 있으며, 이 단어는 [同文184], [蒙語151], [漢清-當借64A] 등에도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清代에도 쓰였음을 알 수 있다.

【掣籤】(方言-買賣21-1) chèqiān 저비지르다

‘掣籤’은 《大詞典》6-635B의 설명에 따르면 명대 吏部에서 시행한 관리의 선발과 인사이동에 사용한 제비뽑기이다(明吏部對官員選授遷除, 先用拈鬮法). 이는 환관의 청탁을 막고자 추첨식 임용제도를 시행한 것이다. 北京大學 CCL에는 명대 이후 소설, 필기, 청사고 등 47개의 예문이 보이거나 상업용어로 쓰인 예는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다른 판종에는 이 어휘가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편찬자의 분류상의 착오로 보인다.

【酒鋪】(方言-買賣20-1) jiǔpù 술판네티

《方言集釋》에는 ‘酒鋪’로 되어 있으나 《譯語》에는 ‘酒店’(술판네티)으로 되어 있다. 《方言集釋》의 풀이가 ‘술판네티’로 되어 있어, 이 두 단어가 동의사임을 알 수 있다. ‘酒店’의 비교적 이른 용례는 《世說新語》:“阮宣子常步行, 以百錢掛杖頭, 至酒店, 便獨酣暢.”이며, 元代 話本이나 《老乞大》 등에 보인다. 한편 ‘酒鋪’의 비교적 이른 용례로는 元代 全元曲의 雜劇(“左右將馬來, 我去酒鋪裏, 喝幾甌涼酒去來.”)에 보인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酒店’이 ‘酒鋪’보다 먼저 출현했고 ‘酒鋪’가 후대에 간행된 《方言集釋》에 채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1)</sup> 한편 《大詞典》9-1386A의 ‘酒鋪’에서는 1. 酒店的櫃台. 清·洪昇 《長生殿·疑讖》:“我家酒鋪十分高, 罰誓無賒掛酒標.” 2. 方言. 酒店. 陳永春 《雜記北平》:“就由於酒缸有特殊作用, 徒使‘某某酒鋪’金字招牌默默無聞, 直呼它叫‘酒缸’.”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두가지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우선 ‘酒鋪’의 本義를 ‘술집의 데스크’(酒店的櫃台)라 하고 그 용례를 清代의 것을 인용했으나, 元代에 이미 ‘술집’이라는 의

21) 북경대학의 CCL 검색 결과 사용빈도는 ‘酒店’이 ‘酒鋪’보다 높았다.

미로 쓰인 용례가 보이므로 본의를 틀리게 보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항에 ‘술집’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현대의 용례를 들었으므로 용례인용이 늦은 시기의 것이다.

【招牌】(方言-買賣20-1) zhāopái 흥정보람픽

‘招牌’는 유혜류 역학서 중 《方言集釋》에만 보인다. 현대중국어에서는 상업관련 상용사로 쓰이고 있다. 즉 상점 입구에 걸어 놓은 표식(간판)이다. 《大詞典》6-517A에는 宋·張任國《柳》詞：“掛招牌，一聲喝彩，舊店新開。”(간판을 걸고 한 번 외치니 옛 상점을 새로 여는 것 같다.)을 인용하였다. 北京大學 CCL에도 송대 이후 250여개의 예문이 보인다.

【茶局】(方言-買賣20-1) chájú 차푼네티

‘茶局’는 《大詞典》에 보이지 않는다. 北京大學 CCL에는 《明史》：“四川茶鹽都轉運使言：‘宜別立茶局，徵其稅，易紅纓、氈衫、米、布、椒、蠟以資國用，而居民所收之茶，依江南給引販賣法，公私兩便。’於是永寧、成都、筠、連皆設茶局矣。”라는 문장이 보인다. 이 문장으로 볼 때 ‘茶局’은 차의 전매를 관장하던 국가 기관이다. 그러나 《方言集釋》의 풀이에서 ‘차푼네티(차 파는 곳)’라고 하여 明代의 용례에 부합하지 않는다. ‘차 파는 곳’이라는 의미로는 CCL에 《水滸全傳》：“那婆子正在茶局子裏水簾底下看見了。”이나 《全元曲·雜劇》：“他去那閣子裏扳了窗櫺，茶局子裏摔碎了湯瓶。” 등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국가 기관과 구분하기 위해 ‘茶局子’라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또 다른 표제어 【錢局】[(方言-買賣20-1) qiánjú 돈푼네티]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大詞典》11-1318B에 ‘造幣局，鑄造錢幣的機構。’明·瞿共美《東明聞見錄·逸史氏論瞿式耜理財》：“遂開錢局，月得二萬金。”(곧 錢局을 개설해 월 2만금을 벌었다.)을 인용했다. ‘茶局’과 ‘錢局’은 국가의 稅收나 화폐를 주조하는 기구이며, 이러한 핵심 의미자질은 ‘局’이라는 글자에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차푼네티’, ‘돈푼네티’라고만 풀이하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용어와의 구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명청시기 ‘차푼네티’는 ‘茶坊’이라했고(龍潛淹《宋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1985 621-623쪽 참조), ‘茶局子’라고도 했다. 현대어로는 ‘茶館’이라 한다. ‘錢局’도 마찬가지로 국가 기구이며, 민영 금융 취급점은 ‘錢莊’, 또는 ‘錢店’이라 했다(《大詞典》

11-1319).

이상의 풀이에서 알 수 있듯 몇몇 단어는 《大詞典》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어렵지 않게 다른 예문을 찾아 보충할 수 있었다. ‘중주향어’의 단어들도 특수한 출처가 있기는 했지만 원전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상업어휘로 보기 어려운 단어가 있는가 하면 잘못 풀이한 단어도 있었다.

## V. 결어

조선시대의 유해류 역학서는 당시 외교적 환경과 시대적인 인문정신으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四學에 당시에 큰 필요가 없었던 만주어나 몽골어 대역사서를 편찬한 일이나, 일회성을 지양하고 200여년에 걸쳐 매우 다양한 판종을 생산한 사실로 보더라도 이러한 면면을 살필 수 있다. 한편 어휘는 사회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언어요소이자, 시대성 또한 적극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아래 본 연구는 명칭시기 매우 활발했던 상업을 주 영역으로 하여 조선 시대에 간행된 유해류 역학서를 활용해 상업어휘를 연구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말-중국어-만주어-몽골어-일본어 대역사서인 《方言集釋》을 활용하여 상업어휘를 중심으로 표제어의 구성과 판종 간의 전승관계를 살폈으며, 몇몇 난해한 어휘들을 대상으로 풀이를 진행했다.

우선 《方言集釋》은 〈買賣〉와 〈借貸〉의 두 部類에 상업어휘를 수록하고 있었다. 이 점은 이전의 유해류 역학서에 보이지 않은 것으로 《漢清文鑑》의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판종 간의 전승관계를 살펴 본 결과, 다수의 어휘들이 이미 간행되어 있던 다른 판종에서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점은 이 책이 다국어 대역사서의 체제를 취하고 있어 내용 취합이나 어휘간의 대응성을 고려한 편의적인 태도에 기인했다고 판단한다. 《譯語類解》와 《譯語類解·補》에서 가져온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중 19개의 어휘가 《方言集釋》에만 보여, 새로운 어휘를 적극적으로 수집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만 간행시기가 비교적 가까운 《同文類解》

나 《蒙語類解》의 어휘 중 누락한 것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밝히지 못했다. 이점은 차후의 연구로 미룬다.

마지막으로 ‘중주향어’의 다섯 개 어휘와 기타 난해한 어휘를 풀이했다. 대부분이 대형사서나 관련주석을 활용해 풀이할 수 있었으며, 茶局 錢局 掣籤 등과 같은 일부 표제어는 풀이가 잘못 되거나 상업어휘가 아닌 것이 발견되기도 했다.

《方言集釋》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5종 언어 대역사서이다. 선행연구와 본고를 통해 이 책이 학술적으로 더욱 주목받기를 기대해 본다.

### 【參考文獻】

#### 1. 類解類 譯學書 原典

《方言集釋》일본학 제7집,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8.

《譯語類解》, 《譯語類解·補》, 아세아문화사, 1974(李基文 해제).

《同文類解》, 홍문각, 1995(洪允杓 해제).

《韓漢清文鑑》, 연희대학교 동방학 연구소, 1956(閔泳珪 해제).

《蒙語類解》(《蒙語類解補編》), 《捷解蒙語》,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6(宋基中 해제).

《四本對照倭語類解》(《倭語類解》 1781, 《和語類解》 1837, 《日語類解》 1912, 《朝鮮偉國字彙》 1838), 제이앤시, 2004(鄭光 해제).

《華語類抄》, 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4(全基廷 해제).

《漢語抄》, 홍문각, 1955(洪允杓 해제).

#### 2. 研究書, 論文

姜信沆, 《韓國의 譯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강은지, 《《方言類釋》의 ‘中州鄉語’에 나타나 있는 언어자료 연구》; 《언어연구》 제26호, 2007.

곽재용, 《類解類 譯學書의 ‘身體部 語彙 研究》; 《한글》 제228호, 1995.

金芳漢, 《《三學譯語》·《方言集釋》考》; 白山學會, 《白山學報》第1號, 1966.

김영일, 《《譯語類解》 속의 우리말 難解語》; 《語文學》 通卷 第80號, 2003. 6.

김은정, 강순제, 《朝鮮時代 外國語學習書를 中心으로 본 服食名稱 研究》; 《服食》 Vol.56, No.6, 2006.



- 李泰洙, 《〈老乞大〉四種版本語言研究》, 語文出版社 2003.
- 梅家駒 等 編, 《同義詞詞林》, 上海辭書出版社 1983.
- 박재연 교점, 《노걸대·박동사 원문·언해 비교자료》,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3.
- 박찬식, 《類解類 譯學書 '性情'部 語彙의 考察》; 《한말연구》 Vol.23, 2008.
- \_\_\_\_\_, 《類解類 譯學書 '人品'部 語彙의 考察》; 《겨레어문학》 Vol.36, 2006.
- \_\_\_\_\_, 《類解類 譯學書의 '宮室'部 語彙의 考察》; 《한말연구》 Vol.18, 2006.
- 배석주, 《〈方言集釋〉의 倭語 研究》, 제이앤씨, 2006.
- \_\_\_\_\_, 《〈方言集釋〉 諸外國語音轉寫表記의 獨自性》; 일본어문학회, 《일본어문학》 제 10권 / 2000.
- 소열녕, 《〈방언류석(方言類釋)〉에 나타난 근대한음계(近代漢音系) 차용어(借用語)》; 《구결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2.
- 심소희, 《〈譯語類解〉의 小考》; 《中國語文學論集》 第4號, 1992. 8.
- 양오진, 《早期 中國語辭典의 種類와 特徵에 對하여》; 《中國學報》 Vol.50, 2004.
- 연규동, 《近代國語 語彙集 研究》, 서울대학교 博士學位 論文, 1996.
- \_\_\_\_\_, 《近代國語의 낱말밭(Semantic Field) - 類解類 譯學書의 部類排列順序를 中心으로》; 《言語學》 Vol.28, 2001.
- \_\_\_\_\_, 《譯語類解 現存本에 對한 一考察》; 《國語學》 第26輯, 1995. 12.
- \_\_\_\_\_, 《漢字 特殊 字形 研究 - 類解類 譯學書를 中心으로-》; 《言語研究》 Vol.15, 1997.
- 王洪湧, 《先秦兩漢商業詞彙、語義系統研究》, 華中師範大學 博士論文 2006.
- 遠藤光曉 等 編, 《譯學書文獻目錄》, 박문사, 2009.
- 蔣紹愚,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2005.
- 鄭 光, 《譯學書研究》, 제이앤씨, 2002.
- \_\_\_\_\_, 《類解類 譯學書에 對하여》; 《國語學》 第7輯, 1978.
- 조강희, 《倭學書에 보이는 日本語音의 比較研究-〈倭語類解〉《方言集釋》《三學釋語》를 中心으로》; 《일어일문학》 제21권, 2004.2.
- 채영순, 《〈方言類釋〉의 近代漢語史적 研究 價値》; 《中語中文學》 第47輯, 2010.12.
- 姜勇仲, 《〈朱子語類〉詞彙研究》中國 北京大學 博士論文 2006.
- 姜勇仲(a), 《釋“鑿糟”》; 《周口師範學院學報》 2008/01.
- 姜勇仲(b), 《語彙系統 研究와 中國歷代 商業語彙 研究方法》; 《中國文學研究》 2008, Vol.36.
- 姜勇仲(a), 《朝鮮時代 類解類 譯學書 商業語彙 收錄樣相과 對比》; 《中國言語研究》 2009, Vol.30.
- 姜勇仲(b), 《朝鮮時期〈譯語類解〉所見의 明清時期商業詞彙研究》; 《第四屆漢語史研討會暨第七屆中古漢語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北京語言文化大學, 2009.8.

姜勇仲(a), 〈조선시대 역학서를 통해 본 중국어 분류어휘 교육의 의의-《老乞大》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 연구》 2010, Vol.12.

姜勇仲(b), 〈《譯語類解》‘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 《中國文學研究》 2010, Vol.41.

姜勇仲, 〈《譯語類解·補》 상업어휘 연구〉; 《中國文學研究》 2011, Vol.45.

부록: CCL(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 목록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01周

春秋/今文尚書/詩經/周易/

●02春秋

國語/老子/論語/墨子/孫子/左傳/

●03戰國

楚辭/楚辭補注/大學/公羊傳/谷梁傳/管子/鬼谷子/韓非子/禮記/呂氏春秋/孟子/商君書/孝經/荀子/晏子春秋/儀禮/逸周書/中庸/周禮/庄子/縱橫家書/

●04西漢

『(史書)史記/戰國策/』 『(諸子)法言/淮南子/賈誼新書/

●05東漢

『(佛經)佛經選/佛說般舟三昧經/佛說四十二章經/』 『(古詩)古詩十九首/孔雀東南/』 『(史論)風俗通義/論衡/太平經/新論/』 『(小說)獻帝春秋/趙飛燕外傳/

●06六朝

『(道論)抱朴子/』 『(佛經)北涼譯經/北魏譯經/東晉譯經/鳩摩譯經/劉宋譯經/西晉譯經/西秦譯經/支謙譯經/』 『(佛語泉)寶藏論/』 『(詩文)曹操詩/陶淵明集/』 『(史書)三國志/三國志裴注/』 『(小說)百喻經/九州春秋/穆天子傳/山海經/世說新語/搜神后記/魏晉世語/西京雜記/』 『(議論)文列子/文心雕龍/

●07隋

信心銘/

●08唐

『(佛經)禪源詮序/地藏本愿/佛說譬喻/華嚴經唐/楞伽師資/療痔病經/入唐求法/首楞嚴經/心經法成/心經法月/心經共利/心經玄奘/心經智慧/原人論/』 『(佛語泉)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筠州洞山悟本禪師語泉/六祖壇經/馬祖語泉/神會語泉/小止觀/鎮州臨濟慧照禪師語泉/』 『(史書)北齊書/』 『(唐詩)白居易詩/陳子昂詩/崔顥詩/杜甫詩/杜審言詩/寒山詩/李白詩/李賀詩/李商隱詩/拾得詩/唐詩三百首/王梵志詩/王維詩/薛濤詩/』 『(小說)大唐創業起居注/大唐新語/霍小玉傳/明皇雜泉/南岳小泉/隋唐嘉話/唐國史補/五代新說/野朝僉載/游仙窟/

●09五代

敦煌變文集新書/ 十六國春秋別本/ 祖堂集/

●10北宋

『(佛語泉)禪林僧寶傳/』 『(史書)旧五代史/新五代史/資治通鑑/』 『(宋詞)李煜詞/柳永詞/歐陽修詞/秦觀詞/蘇軾詞/晏几道詞/晏殊詞/』 『(宋詩)宋詩一百首/』 『(小說)大金吊伐泉/大宋宣和遺事/話本選集1/江南野史/靖康傳信泉/靖康紀聞/遼志/夢溪筆談/南北朝雜記/南遷泉/南征泉匯/三國雜事/宋朝事實/太平廣記/五代春秋/五代史闕文/五國故事/西夏事略/湘山野泉/』 『(語泉)朱子語類/

●11南宋

『(佛語泉)古尊宿語泉/无門關/五灯會元/』 『(詩詞)李清照詞/辛棄疾詞/元好問詞/朱敦儒詞/朱淑真詞/

●12元

『(口語)老乞大新釋/老乞大諺解/』 『(戲劇)倩女离魂/西廂記雜劇/』 『(小令散曲)元人小令/元散曲/』 『(小說)話本選集2/

●13明

『(小說)包公案/初刻拍案惊奇(上)/初刻拍案惊奇(下)/大同紀事/東漢秘史/二刻拍案惊奇(上)/二刻拍案惊奇(下)/封神演

義(上)/封神演義(下)/封神演義(中)/皇明本紀/皇明紀略/皇明奇事述/皇明盛事述/皇明異典述/姜氏秘史/今古奇觀(上)/今古奇觀(下)/金瓶梅崇禎本/警世通言(上)/警世通言(下)/兩晉秘史/清暑筆談/三寶太監西洋記(二)/三寶太監西洋記(三)/三寶太監西洋記(四)/三寶太監西洋記(一)/三國演義(上)/三國演義(下)/三國演義(中)/蜀王本紀/水滸全傳(上)/水滸全傳(下)/水滸全傳(中)/隋唐野史/萬歷野獲編/五代秘史/西游記(上)/西游記(下)/西游記(中)/夏商野史/醒世恒言(上)/醒世恒言(下)/醒世姻緣傳(上)/醒世姻緣傳(下)/醒世姻緣傳(中)/續英烈傳/野記/英烈傳/喻世明言(上)/喻世明言(下)/云中紀變/云中事記/周朝秘史/

●14清

¶ [詩詞]納蘭詞/ ¶ [小說]八仙得道(上)/八仙得道(下)/狄公案/狄青演義/東度記(上)/東度記(下)/東南紀事/東周列國志(上)/東周列國志(下)/東周列國志(中)/兒女英雄傳(上)/兒女英雄傳(下)/二十年目睹之怪現狀(上)/二十年目睹之怪現狀(下)/二十年目睹之怪現狀(中)/官場現形記(上)/官場現形記(下)/海公大紅袍傳/海公小紅袍傳/海國春秋(上)/海國春秋(下)/紅樓夢(上)/紅樓夢(下)/紅樓夢(中)/呼家將/濟公全傳(二)/濟公全傳(三)/濟公全傳(四)/濟公全傳(一)/鏡花緣(上)/鏡花緣(下)/九尾龜(二)/九尾龜(三)/九尾龜(四)/九尾龜(一)/康熙俠義傳(上)/康熙俠義傳(下)/康雍乾間文字之獄/老殘遊記/老殘遊記續/聊齋志異(上)/聊齋志異(下)/綠野仙踪(上)/綠野仙踪(下)/綠野仙踪(中)/滿清外史/木蘭奇女傳/南朝秘史/孽海花(上)/孽海花(下)/彭公案(二)/彭公案(三)/彭公案(四)/彭公案(一)/七劍十三俠(上)/七劍十三俠(下)/七俠五義(上)/七俠五義(下)/乾隆南巡記(上)/乾隆南巡記(下)/清代野記/清宮禁二年記/儒林外史(上)/儒林外史(下)/三俠劍(上)/三俠劍(下)/三俠劍(中)/施公案(二)/施公案(三)/施公案(四)/施公案(一)/說唐全傳(上)/說唐全傳(下)/說唐全傳(中)/說岳全傳(上)/說岳全傳(下)/隋唐演義(上)/隋唐演義(下)/太平天國戰記/外交小史/文明小史/西夏書事/西巡回鑾始末/熙朝新語/俠女奇緣(上)/俠女奇緣(下)/湘軍志/小八義(上)/小八義(下)/小五義(上)/小五義(下)/小五義(中)/綉雲閣(上)/綉雲閣(下)/續濟公傳(上)/續濟公傳(下)/續濟公傳(中)/薛剛反唐/鴉片事略/楊家將/閱微草堂筆記(上)/閱微草堂筆記(下)/張文襄公事略/趙太祖三下南唐/

●15民國

¶ [小說]大清三杰(上)/大清三杰(下)/大清三杰(中)/貂蟬艷史演義/古今情海/貴妃艷史演義/漢代宮廷艷史/洪憲宮闈艷史演義/后漢演義/兩晉演義/留東外史/留東外史續集/滿清興亡史/民國演義/民國野史/明代宮闈史/明史演義/南北史演義/奴才小史/乾隆休妻/秦朝野史/秦漢演義/清朝秘史/清朝前紀/清朝三百年艷史演義/清代宮廷艷史/清史演義/上古秘史/十叶野聞/順治出家/宋代宮闈史/宋代十八朝宮廷艷史/宋史演義/隋代宮闈史/唐史演義/同治嫖院/五代史演義/武宗逸史/西漢野史/西施艷史演義/西太后艷史演義/雍正劍俠圖(上)/雍正劍俠圖(下)/雍正劍俠圖(中)/元代宮廷艷史/元代野史/元史演義/昭君艷史演義/

●[大藏經]第01~12卷/

●[全宋詞]全宋詞(第一冊)~(第七冊)/

●[全宋詞]全宋詞/

●[全唐詩]全唐詩1~5/

●[全元曲]散曲, 戲文, 雜劇/

●[諸子百家-兵家]——八陣總述/百戰奇略/翠微先生北征象/何博士備論/虎鈴經/紀效新書/將苑/歷代兵制/六韜/三略/三十六計/神机制敵太白陰經/守城象/司馬法/素書/唐太宗李衛公問對/衛公兵法輯本/尉繚子/握奇經/吳子兵法/曾胡治兵語象/

●[諸子百家-道家]——測字秘牒/純陽演正孚帝帝君既濟真經/洞天福地記/關尹子/海內十洲三島記/鵬冠子/黃帝陰符經/黃庭經/六十甲子本命元辰歷/人倫大統賦/悟真篇/陰騭文/玉皇經/月波洞中記/云笈七籤(第二部)/云笈七籤(第三部)/云笈七籤(第四部)/云笈七籤(第一部)/

●[諸子百家-法家]鄧析子/慎子/

●[諸子百家-蒙學]百家姓/鑿略安注/了凡四訓/列女傳/千字文/三字經/聲律啟蒙/圍爐夜話/小學詩/訓蒙駢句/顏氏家訓/幼學瓊林/增廣賢文/朱子家訓/

●[諸子百家-儒家]傳習錄/春秋繁露/大學章句/大學章句集注/賈誼新書/孔子家語/劉向說苑/論語集注/孟子集注/鹽鐵論

/中鑿/中庸集注/

- 〔諸子百家-十三經〕爾雅/儀禮/周禮/
- 〔諸子百家-史類〕大唐傳載/歸田錄/國語/金樓子/陸賈新語/史通通釋/一貫問答/
- 〔諸子百家-医家〕百家針灸歌賦/黃帝八十一難經/黃帝內經靈樞/黃帝內經素問/神農本草經/

### 【中文提要】

《方言集釋》(1778年)是朝鮮時期問世的近代漢語口語分類詞典之一。這種分類詞典一般稱之為“類解類譯學書”，在朝鮮時期將近有八種付梓。所以《方言集釋》進行分類和考釋有一定的學術意義。就此以其中的商業詞彙為分析對象，與前後出版的八種“類解類譯學書”詞目做了比較，並指出不同版本之間的影響關係。《方言集釋》的傑出特點就是它收錄了漢語、滿洲語、蒙古語和日語。所以可以說《方言集釋》是一本十八世紀東亞語言的寶庫，也可以說是綜合分類詞典。

第二章介紹了研究方法和範圍。第三章，對《方言集釋》商業詞彙的構成和版本之間的影響進行了考察。第四章進行了幾個詞語的考釋，其中有疑難詞與“中州鄉語”。另外還附錄了CCL(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的古代漢語數據的書目。

### 【主題語】

《方言集釋》，商業，詞彙，考釋，類解類譯學書

투고일: 2013. 10. 15 / 심사일: 2013.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3. 11. 10